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내일
2018. 9
Vol. 521



CONTENTS

2018. 9 Vol. 521



08



12

SECTION 1 미래로 가는 길

- 04 내일을 위한 청년정책
- 08 가재 미래로
- 12 청년 서포터

SECTION 2 목표를 얻는 길

- 16 능력개발 길잡이
- 20 미래 유망 직종
- 24 명인을 만나다



24

SECTION 3 변화가 시작되는 길

- 28 Work & Life Balance
- 32 청춘불패
- 36 상생을 꿈꾸다



28



40



44

SECTION 4 꿈을 함께 하는 길

- 40 함께 하는 세상
- 44 나누고 더하면 행복
- 48 드림 프로젝트

SECTION 5 희망을 노래하는 길

- 52 노사문화 우수 기업
- 56 쉽게 풀어 보는 산업안전
- 58 노동법 길잡이
- 60 모엘 뉴스
- 66 알기 쉬운 정책
- 68 내일 카툰



52

SECTION 6 여유를 찾는 길

- 70 이달의 청백리
- 72 건강 100세
- 74 한국의 맛
- 76 상식사전
- 78 길 위의 사색
- 82 모엘 마당



78

고용노동부 소식지 9월호 <내일>

통권 제521호
 등록번호 강남 리00389
 발행일 2018년 9월 3일
 발행인 김영주
 발행처 고용노동부
 편집위원장 이현수(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77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com
 기획·편집·디자인 하나로에드컴
 인쇄·발송 애드그린

해외취업에 관심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청년 해외취업 지원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노력은 해외취업에서 꽃을 피우곤 합니다.
실제 해마다 해외취업자는 늘고 있고 그 문도 점차 넓어지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청년들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글 강숙희

GLOBAL



청년 80% 해외취업 희망

시원스쿨랩과 잡코리아가 최근 20~3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회가 된다면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80%, 실제 해외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20%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많은 이들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가능할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고, '일하면서 어학능력 향상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서'라고 대답한 사람도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취업이 어려워 더 많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바로 뒤를 이었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사실, 또 하나는 해외취업을 통해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한 환경을 찾는다는 사실이지요.

해외취업자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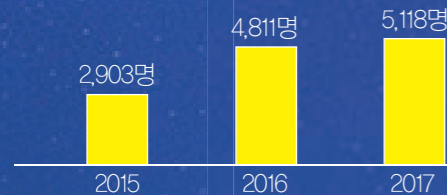
이렇게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등 인재 양성과 해외일자리 매칭 등을 연계해 주고 있어요. K-Move스쿨을 통해 청년들에게 어학 및 직무교육도 제공하고 이 후 해외취업까지 연계해 주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해외취업을 위한 지원활동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마다 해외기업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기업과 일대일 면접, 취업 전략 강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해요. 또 '월드잡플러스 서포터즈'를 선발해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관련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해외취업을 위한 컨설팅과 우수활동팀에게는 현지 멘토링 기회도 제공해요.

해마다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한 해외취업자 증가

실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통한 해외 취업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취업자들의 평균 연봉도 상승하고 있어요. 2015년에는 2,903명이, 2016년에는 4,811명이, 2017년에는 5,118명이 해외취업에 성공했는데요. 평균 연봉도 2,576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2,900만 원까지 상승했지요. 우리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가까운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어 미국, 싱가포르 등도 취업을 많이 하는 나라로 나타났어요. 한 일본기업 관계자는 한국 청년의 최대 장점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도전적인 자세'를 언급했는데요. 어렵게 취업한 만큼 우리 청년들이 진취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한 것이지요.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한 해외취업자 수 추이>



앞서 한국 청년들의 취업 선호 국가가 일본이라고 했잖아요? 이에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일본으로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답니다. 마침 일본은 경제 회복세와 함께 고령화로 기업들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태라 진출이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한-일 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 전후 모든 과정을 짜임새 있게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이 외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ETSGlobalKorea와 YBM과 함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어학교육훈련 콘텐츠와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어요. 또 한국무역협회와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맞춤형 해외취업연수 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 국내외 채용 행사 공동 개최, 신형시장 내 일자리 개척, 해외취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인프라 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했지요.

보다 상세한 지원 내용과 국가별 진출 정보, 구인기업 정보 등 해외취업에 관한 모든 것은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고 현지에 정착해 글로벌 리더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과 꿈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직자의 앞날을 내 일처럼 생각하다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황순재 상담사

웃는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밝은 목소리, 선한 표정으로 구직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구직자들의 앞날을 내 일처럼 생각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2017년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 우수 사례 공유 수상자 황순재 상담사의 이야기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13년 동안 천직으로 알고 일했던 항공사 승무원

황순재 상담사는 원래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녀의 형제는 1남 3녀인데, 세 자매가 모두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내 집처럼 드나들며 이코노미부터 시작해 퍼스트 클래스의 사무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이 잘 맞았어요. 자매 모두 승무원이라는 프라이드도 있었죠. 13년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연구원인 남편과는 주말부부로 계속 지냈어야 했죠.”

아이들이 어렸기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그녀는 13년간 일했던 정든 회사를 그만두고 대전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승무원 준비 컨설팅, 서비스 강의, 대학교 승무원 학과 등에 출강을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같은 서비스 컨설팅에 있던 분이 저에게 직업상담사라는 직종을 알려 주셨어요. 흥미가 생겨서 자격증을 획득하고 마침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상담사 모집 공고가 떠서 지원을 하게 됐죠.”



4년 차 직업상담사인 황순재 상담사가 노력하는 법

황순재 상담사는 자신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상담사 일을 시작하고 난 후 1년 차에 친절사원 선정을 시작으로 우수 사례 수기 당선, 슈퍼비전 컨퍼런스 수상 등 다양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쁘게 봐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상을 받고 칭찬을 들을 때마다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직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책임감도 느끼게 되죠.”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한 황순재 상담사는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상담공부, 심리공부를 시작합니다. 애니어그램과 집단상담 과정을 이수하고, 평생교육사도 수료했습니다.

“심리학 공부가 재미있어요. 또 상담을 하면서 많은 도움도 되었죠.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석사 학위를 취득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망에 빠져 있던 20대 젊은 부부의 사례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자를 물어보니 20대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면서 남편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긴 시간 동안 해 왔고, 아내는 빚을 얻어 힘들게 살다가 당시 실직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그만두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위해 부부가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저는 아내의 상담을 맡았는데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대학도 나왔고 능력도 있었고 나이가 젊었음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더라고요.”

황순재 상담사는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었습니다.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속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올려주고 싶었어요. 용기를 낼 수 있는 말, 아픔에 공감해 주는 말, 칭찬하는 말을 계속해 주었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상담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후 취업에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자의 남편 역시 취업에 성공하여 지금은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찾은 천직,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황순재 상담사는 이 일을 ‘천직’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찾고, 그 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그것에 응해 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상담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상담사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물론 실제 구직자가 원하는 바를 찾아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황순재 상담사는 강조했습니다.

“직업 이동이 많은 40대 초반의 남자분이 원하는 직종을 찾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말하는 요지를 잘 파악해서 원하는 바를 알아내는 것도 상담사의 역량이죠. 저는 그 역량을 더 키워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구직자는 현재 실패와 성공의 중간 과정에 있으며 상담사는 그들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황순재 상담사. 행복하게 일하는 그녀의 밝은 미소에서 구직자들의 밝은 내일도 약속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중질환 진단의 선도 기업

피씨엘(PCL) 주식회사

피씨엘(주)은 면역진단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사업을 하는 면역진단전문업체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다중면역진단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입니다. 대표부터 사원까지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회사와 함께 미래를 열어 가고 있는데요,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피씨엘(주)의 이야기를 만나 보시죠.

글 노혜진 사진 이지수

2008년 설립된 특허 보유 기업

이수영 연구 담당자는 피씨엘(주)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고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의 원천기술은 3차원 솔젤 고정화기술(SG cap)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중질환 동시진단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인증을 위해 프랑스 임상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제품군은 수혈 전 검사, 독감 검사, 암 스크리닝 등이 있습니다.

보통 한 번의 검사에 한두 개 정도의 진단만 가능하지만 저희 제품은 한 번의 검사로 여러 질병을 진단할 수 있어 시

간,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장점이 있죠.”

현재 정부의 ‘바이오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유망바이오 IP 사업화 촉진 사업’에 선정된 피씨엘(주)은 수혈 전 고위험군 면역 및 혈액형 검사를 통합한 통합 수혈 혈액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HIV, HBV, HCV, HLTV검사와 혈액형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원활하게 안전한 혈액 공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글로벌 역량을 인정받아 성장기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며,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TOP 10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좋은 환경

양가영 인사 담당자는 피씨엘쥬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소개했습니다. 현재 피씨엘쥬의 평균 연령대는 34세입니다. 20대 후반~30대 초반 직원들이 주축을 이루는 젊은 기업으로,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채용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혈액관리라는 특수한 분야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보니,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회사에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지만, 직원이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점이 매우 가치 있기 때문이죠." 연구직에는 바이오 관련 전공자를 선호하는 편이고, 관리직은 전공 제한 없이 열정이 있는 지원자에게 활짝 열려 있다고 합니다. 현재 피씨엘쥬의 직원은 50여 명으로 인턴과 일부 임원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직인 만큼 직원들에게 고용 안정성과 신뢰를 주고, 더불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시행하여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건강 복지로 직원들 만족도 UP

피씨엘쥬는 현재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직원 건강과 관련된 복리후생이 많다고 합니다. "병원과 제휴하여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직원을 위해 다이어트 도시락을 회사에서 주문해 줍니다. 오픈 BAR에 다양한 영양간식도 가득합니다. 또한 로비에 오픈키친이 있어 동료들과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식 지원은 물론, 인근의 맛있는 식당을 대표님이 직접 가서 먹어 보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도 맺었어요. 강사를 초청하여 요가를 배울 수 있도록 요가매트도 구비해 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일과 육아를 직접 경험했던 김소연 대표는 출산, 임신에 관한 복지를 시행하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단축 근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도서비를 지원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쾌적한 사무실 환경은 물론, 아이디어 대회를 열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일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원천 기술로 더욱 빛나는 미래

지난해 2월 코스닥 상장을 마친 피씨엘쥬는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원 가량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현재 유럽에서 인증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곧 해외 진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씨엘쥬는 지금까지 고속성장을 해 오고 있는데요,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기에 진단산업 내에서도 다중진단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고, 연평균 4%대의 성장이 전망되는 글로벌 혈액 선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성장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청년들이 많은 젊은 기업인 만큼 간결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며 수평적인 회사입니다. 대표님도 일터는 즐거워야 한다고 하시죠. 인턴십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량 있는 젊은 청년들이 회사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바라보며 차근차근 길을 밟아 나가고 있는 피씨엘쥬, 피씨엘쥬의 높은 기술력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날을 기대합니다.



사업주와 구직자에게 날개를 달아 주다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지금까지 일과 교육 및 훈련, 자격증은 별개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펙만을 보고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현장에 즉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는데, 교육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능력단위 학습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발부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글 노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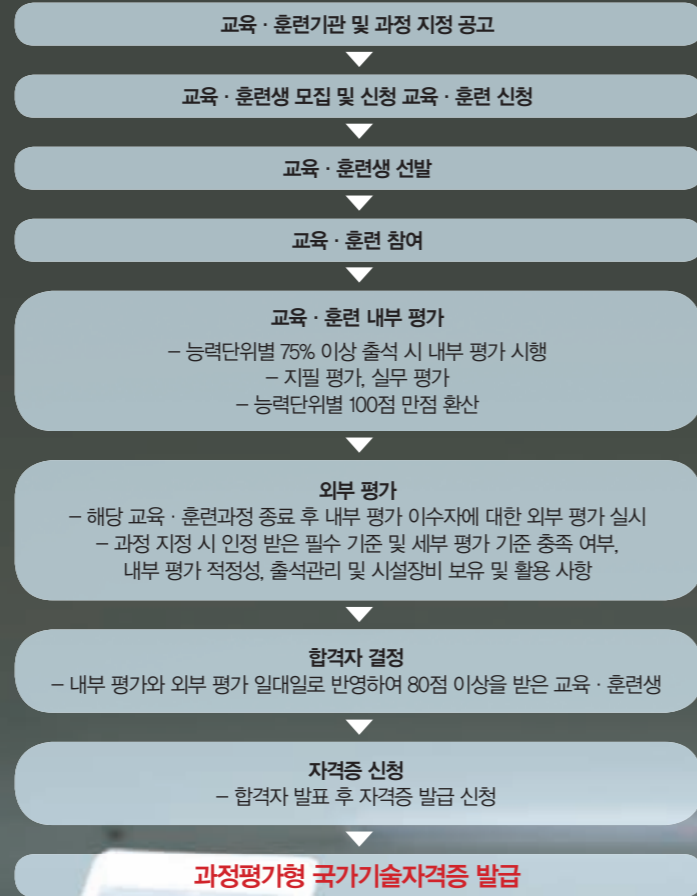
현장교육 중심의 인재 양성 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는 <내일> 2017년 3월호와 2018년 7월호에 소개된 적이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능력단위별로 표준화한 것인데,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는 이러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다양한 평가를 거쳐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 자격 제도입니다.

기존 자격 제도와의 차이점

분야	기존 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증
응시자격	학력, 경력요건 등 응시요건 충족자	해당 과정 이수자
평가방법	지필 평가, 실무 평가	내부 평가, 외부 평가
합격기준	필기: 평균 60점 이상 / 실기: 평균 60점 이상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결과를 일대일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자격증	기재 내용: 자격종목, 인적사항	검정형 기재 내용+교육·훈련기관명, 교육·훈련기간 및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명

과정평가형 자격 신청 및 이수 방법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과정평가형 자격의 혜택

과정 참여 시 계좌제 훈련의 경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생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특히 NCS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경력개발에 유리합니다. 자격증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모든 능력단위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취업 시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고, 기업은 필요한 직무에 인재를 선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로 만드는 더 나은 내일

현재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동종 분야 취업률은 90.8%에 달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관련 자격 분야를 꾸준히 늘려 왔는데, 2015년 제도 첫 시행 당시 15종 목이었던 대상 종목은 2018년 현재 111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9년 과정평가형 대상 종목에 3D프린터운용기능사, 항공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등 추가 32개를 더 선정하였어요.

어떤가요? 사업주와 구직자 모두에게 취업이라는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탄생한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대상 종목이 더 확대될수록 혜택을 받는 사업주와 구직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팜 전문가의 세계

농촌진흥청 **한길수** 연구관

농촌의 고령화 문제, 미래 식량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글로벌 기업인 몬산토, 듀폰, 알리바바 등도 관련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스마트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두 아우르는 스마트팜

농업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농업에 정보통신기술(CT)을 융합한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개발과 한길수 농업 연구관에게 스마트팜의 정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스마트팜이란 좁은 개념으로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작물 성장과 가축 생육 환경을 관리하는 농장을 말합니다. 넓은 개념으로는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스마트 기술로 아우르는 것을 말하죠.” 한길수 연구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물을 관리하거나 생산하면서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는 온디맨드 서비스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생산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농작물 보관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팜

한길수 연구관은 스마트팜이 중요한 이유를 농업이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 동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노동과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농사는 경험이었어요. 언제 물을 줘야 하고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 경험으로 판단했죠. 하지만 스마트팜은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도 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경우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언제 어느 때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하는데, 병충해에 취약한 부분만 집중 관리하거나, 재배 면적에 따른 생산량을 파악,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작물 생산도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데이터가 축적되면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스마트팜 TF를 구성하여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죠.”

한길수 연구관은 또한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스마트팜을 확산하기 위해 25종의 시설원에 기자재를 중심으로 국가 표준화 작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산 제품으로 개발한 스마트팜 기술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

농촌진흥청에서는 현재 농가에서 스마트팜을 쉽게 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중인데요, 내년부터 보급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스마트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축산 분야의 전 과정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전문가 또한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스마트팜 전문가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시설관리, 시스템관리, 환경관리,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농가에 이를 지도하는 일을 담당하죠.”

스마트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원순환 농사의 시작

한길수 연구관은 스마트팜으로 자원순환 농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예컨대 시설원에-곤충-양식-축산분야의 부산물을 활용하여 농축어산물을 얻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자원순환형 스마트팜은 젊은이가 찾아와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미래 식량으로 불리는 스피룰리나 스마트팜이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케나프(양마) 스마트팜도 새로운 영역이기에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스마트팜의 최종 목표입니다. 스마트팜은 농림축산식품부 TF와 농촌진흥청 등이 참여하여 실증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실증시설이 완료되면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준비 중인 농가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검증 받은 기자재를 선택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육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사는 경험적이고 아날로그적이라는 생각을 바꾸게 해 주는 스마트팜. 스마트팜이 더욱 확대될수록 농가에는 맞춤형 생산으로 소득을 더욱 늘리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길을 꾸준히 걸어온 진정한 기술인

(주)이노알앤씨 최인호 대표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을 일해 오며 자신의 기술을 갈고닦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만큼 큰 고난과 역경도 있었지만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 젊은 청춘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죠. 바로 **6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주)이노알앤씨의 최인호 대표이사의 이야기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주)이노알앤씨는 2000년 설립되어 올해 19년 차를 맞이한 기업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자동차용 방진고무 제품을 생산하고 모든 제품 생산에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도입하여 고객의 만족은 물론, 환경까지도 생각하고 있죠. 현대·기아자동차의 2차 협력사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력 확보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Q 먼저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방진고무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A 저는 일찍이 취업을 결심하고 공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기계제도를 전공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평화산업 공채 2기로 취업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방진고무는 평화산업의 방진고무 제품 개발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죠.





Q 방진고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A 엔진이나 차가 달리면서 느껴지는 진동을 완충해 주는 부품을 말합니다. 엔진과 차체 사이에 부착되는 마운트, 차체의 각종 연결부에 부착되어 차체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해 주고 소음도 방지해 주는 부시, 차체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스톱퍼, 차체나 핸들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는 댄퍼 등이 그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부품이지만 자동차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이노알앤씨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이노알앤씨는 자동차용 방진고무 부품의 선두주자로 최첨단 고무 성형기와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2009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이노알앤씨의 창립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A ㈜이노알앤씨의 전신인 이노테크는 2000년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13년을 다녔던 평화산업에서 나와 32세의 젊은 나이에 시작했죠. 직원 1명과 시작한 작은 회사였지만 저는 제품개발과 기술 습득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창업 당시 함께 했던 직원 1명은 현재 공장장으로 지금도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Q 회사가 성장하기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A 2003년 태풍 매미가 왔을 당시 공장이 침수되었어요. 토사가 밀려들어와 기계가 잠기고 제품이 엉망이 되었죠. 그 후에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한 동이 완전히 전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직원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불을 끄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직원들이 있으면 회사는 끄떡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전화위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신데요, 직원 복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현재 ㈜이노알앤씨에는 45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정년이 지나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을 위해 정년을 늘렸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왔기에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야간 학교에 다니면 학비 지원을 해 주고 장기근속자에게는 차량과 주택 구매 비용도 지원해 주었죠. 또한 인재 육성을 위해 사내외 교육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대표님의 가장 큰 꿈은 무엇인가요?

A 회사의 수익을 안정화시켜서 대기업 이상의 복지가 완벽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이집트 등 중동 지역에 해외 수출을 진행했고요, 상업용 식기세척기 및 농업용 장비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일·생활 균형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병원

예쁜미소바른이치과

부산에 위치한 예쁜미소바른이치과는 이직이 잦은 업계 특성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가 많습니다. 일·생활 균형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때문인데요, 2017년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사례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기도 한 예쁜미소바른이치과의 사례를 만나 보시죠.

글 노혜진 사진 이지수



직원들과 성장해 나가는 병원

예쁜미소바른이치과의 시작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직원 3명과 함께 작게 시작했는데, 12년이 지난 현재 4개의 지점을 가진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영팀 지인규 팀장은 병원의 특징을 '직원과 동반 성장'이라고 꼽았습니다.

“병원이 커 나간다고 해서 직원들이 힘들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례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면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인규 팀장은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병원의 성장 이유로 꼽았습니다. 예쁜미소바른이치과는 특별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정직한 치료,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진료를 하기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에 대해 직원들의 프라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직원을 위한 특별한 복지

예쁜미소바른이치과가 추구하는 일·생활 균형 정책은 특별합니다. 여성 직원의 비율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출산 및 육아휴직은 물론 오후 출근이나 주4일 근무 등 탄력근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직원에게는 출산용품 지원과 보직 변경을 해 주고 아이를 출산하면 돌잔치도 지원합니다.

“장기근속 직원들은 3, 6, 9년 단위로 유급휴가 1주일, 2주일, 3주일을 부여하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휴가비도 지급합니다. 쉬는 직원들이 많아도 추가 채용 등으로 업무 공백이 없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병원을 직원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해요. 부담 없이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합니다.”

예쁜미소바른이치과의 직원 복지 제도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가장 먼저 ‘기숙사 지원’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오는 직원들을 위해 본인이 원하

는 오피스텔을 고르면 병원에서 보증금 전액과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단합대회도 매년 가집니다. 짧게 국내로 다녀오기도 하고, 5박 6일의 기간으로 필리핀 세부나 태국 등 해외를 가기도 합니다. 계절마다 캠프 지원, 매달 동호회 지원도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로 더 나은 미래 모색

치과로만 병원이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예쁜미소바른이치과는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해 구강용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치약의 경우에는 3~4개월 안에 신제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과용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 모든 연구개발의 특징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직원들도 시간을 쪼개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같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예쁜미소바른이치과의 사례 어떠셨나요? 지인규 팀장은 직원들을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더 행복한 미래를 꿈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의 말에서 예쁜미소바른이치과가 더 발전해 나가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INI INTERVIEW

평생 직장으로 만드는 것이 꿈

이형철 원장



저는 예쁜미소바른이치과를 개원한 이형철 원장입니다. 치과를 설립할 때부터 보건 계통은 졸업하는 학생 수는 많은데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이런 문제가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었죠. 저는 일하고 싶은 직원에게는 평생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독립을 하고 싶은 직원은 지원을 해 주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은퇴했을 때 성공한 직원들이 저를 찾아와 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탄실히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행복한 배려가 일상인 직장

유숙정 코디네이터



저는 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예쁜미소바른이치과는 2번째 직장인데요, 이곳에서 일한 지는 8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비결을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직원들이 서로 허물없이 잘 지내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후배들이 저를 따라주고 원장님들이 위에서 끌어주는 환경도 좋습니다. 업무에서의 스트레스는 있지만 직장 내 직원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아이 키우는 입장을 이해해 주는 분들이 많은 것도 좋아요. 저는 앞으로 워킹맘으로서 인정을 받아 자랑스러운 엄마이자 선배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장년 채용으로 불황을 이겨 내다

(주)H레전드호텔

대전의 유성관광특구 중심에 위치한 (주)H레전드호텔은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로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관광객, 비즈니스맨들에게 내 집 같은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곳 역시 인력난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충청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협력하면서 인력난을 극복한 (주)H레전드호텔의 사례를 만나 보시죠.

자료 제공 노사발전재단

다양한 연령층의 직원이 필요한 호텔업

호텔은 객실과 연회장, 컨벤션을 기본으로 갖추고 투숙객에게 식사를 제공하기에 다양한 연령층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고객을 맞이하는 프론트데스크와 연회 행사지원 및 예약관리, 조리사, 시설관리, 사무직 등 채용하는 사람들의 규모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텔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데요, 대전의 (주)H레전드호텔(이하 레전드호텔) 역시 불황의 여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호텔업의 특성상 이직률이 높았기에 운영상 어려움이 많았죠.

긴밀하게 협력한 레전드호텔과 충청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레전드호텔이 중장년 취업자들에게 눈을 돌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중장년 취업자들의 특성 때문이었는데요, 중장년 취업자들은 그동안 충분한 경력을 쌓아 직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업주부로 일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생활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기에 업무 성실도가 높은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높은 이직률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호텔업에서 기업과 직원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에 레전드호텔은 열린 마음으로 중장년 노동자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특히 충청일자리희망센터(이하 충청희망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면서 중장년 채용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장년고용지원금으로 고민을 덜게 된 레전드호텔

현재 레전드호텔은 전체 직원 39명 가운데 64%에 달하는 25명이 중장년일 정도로 중장년 채용에 적극적입니다. 특히 정년퇴직을 한 직원들이 퇴직 후에 바로 이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요, 노동자가 경력 단절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삶의 공허함을 해소해 주고 그동안의 경험을 새로운 직장 에서 활용하면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채용된 중장년층 직원들이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기에 레전드호텔은 중장년층 채용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장년층의 고용을 진행하면서 충청희망센터에서 장년고용지원금 제도(2018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으로 변경)에 대해 소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레전드호텔 김광근 이사는 충청희망센터의 배려로 자칫 어려울 수 있었던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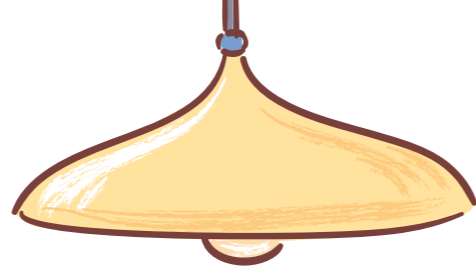
“장년고용지원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준비 등 행정적인 부담이 컸는데요, 충청희망센터의 장년고용지원금 담당자 두 분이 직접 레전드호텔을 방문해 행정적인 부분을 포함해 어려운 사항을 지도해 주셨어요. 이 때문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중장년 고용으로 일구어 낸 밝은 미래

“호텔에는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장년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요, 앞으로 더 많은 호텔들이 중장년 고용에 마음을 열고 적극 나선다면 안정적인 호텔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전드호텔은 고용노동부의 장년고용 지원정책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에 인건비 부담 완화는 물론 생산성 및 경영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는 충청희망센터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중장년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녀 양육 나서는 아빠들, 해마다 쑥쑥

아빠 육아휴직

자녀 양육에 있어 아빠들은 많은 고민이 있었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 부재로 선택 나서서 신청하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녀와의 공감과 가족 간의 유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빠들이 더 느끼고 있답니다. 정부의 지원도 늘고 있고요. 이에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글 강숙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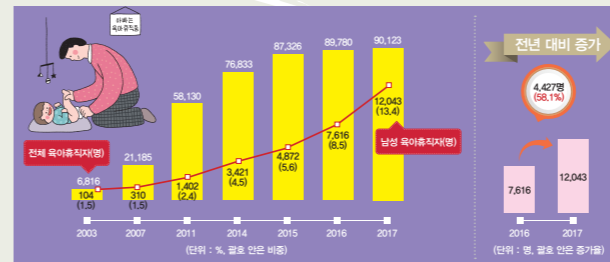


- 쇼핑 목록 -
1. 기저귀
 2. 소고기 300g
 3. 우유
 4. 대파

이제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대세

엄마들이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자녀 양육이 이제는 부부 공동의 역할이라는 인식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6년에는 전체 육아휴직자인 8만 9,000여 명 중 7,000여 명이, 2017년에는 더 늘어 9만여 명 중 1만 2,000여 명이 아빠였답니다. 증가 비율이 1년 새 무려 5%나 꺾중 된 거지요. 아빠 육아휴직자가 1만 명을 돌파한 건 1995년 아빠의 육아휴직이 허용된 이후 22년 만이고요. 이 추세로 간다면 2018년 올해는 1만 6,000여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정부가 돕고 있어요

이렇게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난 것은 일·생활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도 이유지만,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가 강화된 것도 한몫해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물론 2번째 육아휴직을 엄마가 써도 지원이 되지만, 대체적으로 2번째 육아휴직자는 아빠인 경우가 많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첫째에 대해선 150만 원, 둘째는 200만 원이 지급됐으나, 바뀐 제도에서는 첫째든 둘째든 상관없이 모두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지요.

캠페인과 분위기 확산도 한몫했지요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지만 제도가 있다고 누구나 다 활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상승한 데는 일·생활의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한 것도 주요한 이유랍니다. 정부가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근무혁신 실천 협약식, 일·생활 균형 지역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꾸준히 캠페인을 지속해 왔고요. 아빠넷(www.papanet4you.kr)을 개설해 육아정보를 제공하며 아빠들의 육아 참여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어요.

아빠 육아휴직 이후 달라진 점은?

이렇게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늘면서 좋아진 점들이 많답니다. 가장 먼저 아빠들 스스로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자녀를 직접 돌보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이해가 늘었지요. 이해가 생기니 가족 간의 화목함이 얼마나 중요하지도 깨닫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도 늘었어요. 더불어 엄마 아빠가 함께 아동 발달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줄면서, 이로써 저출산 대책에도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답니다.

2018년에도 아빠 힘내세요!

이에 올해도 이를 지원할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CEO나 단체장, 유명인 등 리더들이 앞치마와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고 응원 메시지 영상을 릴레이로 펼치는 '리더 100인이 앞장서는 저출산 극복 릴레이 앞장 캠페인'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아빠들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거예요. 이제 건강한 사회와 올바른 가정문화 확립을 위해 아빠들이 나설 때입니다. 2018년에도 아빠 힘내세요!



청년 음악가를 세상에 알릴
도구가 되다

틀뮤직



팔꿈치 피아니스트를 아시나요?
젊은 피아니스트 최혜연 씨는 어릴 때 사고로
오른손 위팔을 잃었지만 꿈을 잃지 않았고
현재 다양한 연주와 공연에 초대 받는
프로 못지않은 피아니스트가 되었죠.
이 피아니스트의 뒤에는 신진 청년 음악가,
장애인 음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회적기업 틀뮤직이 있었습니다.

글 노혜진 사진 이지수

피아니스트가 도전 정신으로 시작한 사업

툴뮤직을 창업한 정은현 대표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진로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요. 선배와 동기가 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려다가 재동이 걸린 건 2009년 대전시청 수요브런치콘서트 공고를 보고 나서였죠. 연간 48회 공연 기획자 공고였는데, 그 당시 저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멘토기획 김상균 대표님을 설득하여 함께 진행하게 되었어요.”

수요브런치콘서트는 2009년 8월에 대전시정 10대 뉴스에 선정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정은현 대표는 2011년 공연기획사를 본격적으로 설립합니다.

“수요브런치콘서트를 끝내고 출판사 교육부에 취업도 했는데, 직장인은 제 길이 아니었음을 알았어요. 제 일을 해 보자 생각했죠.”

원래 터전인 대전에서 작게 시작한 사무실은 서울에서 후배와 함께 동업을 시작하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2012년에는 꿈에 그리던 첫 번째 음반 유통을 유니버설뮤직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피아니스트를 만나 개척한 새로운 영역

최혜연 피아니스트와 정은현 대표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당시 영덕에서 살고 있던 최혜연 피아니스트의 선생님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자매를 지도하고 있는 걸 도와주게 됐는데, 동생이 오른손 팔이 없더라. 그런데 그 아이도 피아노를 친다고 한다. 한번 봐 주는 건 어떠냐? 하는 제의를 받게 되었죠. 처음에는 장애인이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정은현 대표의 생각을 바꾼 건 만나보고 난 후였습니다.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꿈이라고 말한 최혜연 피아니스트는 아름다운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치는 피아노 선율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끄러웠어요. 편견에 가득 찬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되었죠. 그 뒤로 자연스럽게 장애인 음악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KBS와 SBS의 예능 방송에 출연하면서 8명의 장애인 학생과 연이 되었고, 주식회사 법인 설립 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까지 인증받게 되었죠.”

다양한 사업으로 신진 및 장애인 아티스트 발굴

올해 3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된 툴뮤직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툴뮤직 소속 아티스트가 20명 정도입니다. 직원이 3명인 작은 기획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니 적은 수는 아니에요.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합니다.”

툴뮤직은 재능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티스트를 발굴하여 음악가로 사회에 내놓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툴뮤직 음악 콩쿠르, 툴뮤직 신진유망예술단체 초청 콘서트, 툴뮤직 장애인 음악 콩쿠르, 툴뮤직 콩쿠르 수상자 음악회, 툴뮤직 장애인 음악교육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에 50~100회 가량의 행사 및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음악가에게 마음껏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예술공작소 툴 신사본점, 상도점, 중앙대점, 방배점, 청담점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장애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음악가 육성이 목표

“베토벤, 레이 찰스, 안드레아 보첼리, 스티비 원더의 공통점은 장애인 음악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장애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아요. 툴뮤직의 아티스트들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음악가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툴뮤직의 툴은 도구라는 뜻입니다. 정은현 대표는 젊은 음악가들이 툴뮤직을 도구로 삼아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는데, 기존에는 클래식 음악가를 주로 발굴했지만 최근에는 재즈와 퓨전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한 것도 더 많은 음악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사회적기업 툴뮤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툴뮤직의 슬로건은 ‘You are so Special’입니다. 이 슬로건처럼 툴뮤직의 아티스트 모두 빛나고 아름다운 음악가로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다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서관수 관장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2018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정부포상 장관표창을 받은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서관수 관장을 만나 보았습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이르는 기술도 익힐 수 있습니다.

Q 표창을 받은 것을 축하 드립니다. 관장님의 개인 이력을 말씀해 주세요.

A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초중고를 거쳐 대학까지 졸업했죠. 어릴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아서 초등학교 때 이미 안경을 썼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밤에는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망막색소변성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대학교 4학년 때는 일반 책을 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다행히 교수님의 도움으로 학교는 졸업할 수 있었죠.





Q 대학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나요?

A 사실 저는 스스로 시각장애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큰 글씨는 볼 수 있었고, 가까이 있는 물체도 볼 수 있었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0년은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있다가 1999년 저에게 시각장애가 있음을 인정하고 점자, 컴퓨터, 안마 등을 배우게 되었죠. 그 후 2002년 복지관이 개관하면서 이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Q 복지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A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스포츠와 문화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보직은 여러 번 변경되었는데, 가장 오래 일한 부서는 시각장애인 재활 관련 부서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실명하고 난 후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팀입니다.

Q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어떤 일을 진행하시나요?

A 장애인, 특히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은 처음에는 저처럼 장애인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상황의 분들에게 장애가 있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는 일도 하죠.

Q 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A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혼자 외출이 가능하려면 흰지팡이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또한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는 점자를 알아야 하고, 컴퓨터 사용법도 배우면 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죠. 특히 복지관에 와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위로와 공감을 얻게 되면 앞으로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서로 정보를 얻으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익힐 수 있죠. 직업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는 역학과 주역 교실, 안마 교육 등이 있습니다.

Q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서는 어떤 사항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A 모든 장애인들이 힘들지만 시각장애인은 취업에서도 편견과 더 많이 싸워야 합니다. 비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너무 가혹하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들여 가르쳐 준다면 우리도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일을 잘한다는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시각장애인을 편견 없이 고용할 수 있는 업주, 같이 어울려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Q 시각장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 저 역시 시각장애인임을 부정한 기간이 오래되어 그 심정을 잘 압니다. 하지만 장애는 받아들이고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더 빨리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말했죠. 눈이 먼 것보다 비전이 없는 게 더 비극이라고요.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 스스로도 못한다는 생각을 깨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길이 열리고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



국내 최초로 보툴리눔 독신 제제를 개발하며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회사가 있습니다.
 2000년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사람이 자산이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8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된 메디톡스의 이야기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메디톡스

보툴리눔 독신 관련 국내 1호 박사가 설립한 회사

메디톡스를 설립한 정현호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툴리눔 독신 관련 연구를 통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0년 메디톡스를 설립하여, 흔히 '보톡스'로 알려져 있는 보툴리눔 독신 제제 '메디톡스'(이하 '보톡스'로 통칭)을 개발하게 됩니다. 보톡스의 경우, 지난 1989년, 미국의 오쿨리눔사가 최초로 개발, 출시하였는데요, 당시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미국 엘러건사에 피인수되고, '보톡스'라는 브랜드로 주름 개선 치료를 시작하면서 미용 성형 시장에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메디톡스 주석석 전무의 말에 따르면 전 세계 보톡스 시장은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매거진 <타임>이 지난 2017년 1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톡스는 눈 치료, 얼굴 주름 개선 효과는 물론 우울증, 심장병, 편두통, 다한증, 뇌성마비, 뇌졸중, 방광장애 등 800여 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톡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함을 의미하는데, 그 중심에 메디톡스가 있습니다."





직원의 건강한 시간을 생각하는 복지

메디톡스는 직원의 건강한 시간까지 생각하는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차 외에도 5일을 지원하고 본인 및 가족의 건강검진비 역시 지원합니다. 영어 등 어학을 배우거나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기개발비 역시 전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본인 학자금과 자녀 학자금은 물론 경조사비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가족친화적인 복리후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야근이 없는 문화를 만들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샌드위치 데이도 챙깁니다. 5년 장기근속자에게는 금 5돈과 상패를 지급하고 10년 장기근속자에게는 금 10돈과 여행상품권 그리고 특별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며 필요한 부분을 찾는 메디톡스는, 최근 에버랜드의 건물을 빌려서 ‘메디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전 직원이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사업 다각화로 더 나은 미래 만들기

메디톡스는 사업 다각화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보톡스의 해외 수출 확대에 집중하면서, 전문의약품 등 바이오 신약을 선보이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브랜드라는 자부심을 발판삼아 해외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 채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협 없는 정직함, 헌신과 도전, 높은 기준과 자부심, 열린 커뮤니케이션의 가치를 지니고, 도전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주희석 전무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회사’를 목표로 전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매출 1조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전 임직원들과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톡스의 이직률은 일반 제약회사의 평균보다 훨씬 낮은 10% 초반대입니다. 국내 1위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회사의 지원이 있기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직원들과 함께 나아가는 메디톡스가 글로벌 바이오제약 TOP 20에 진입하는 것도 머지않은 미래인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

제약 및 바이오 회사는 신입사원의 채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약품 개발 및 판매는 특수한 분야이기에 신입사원들을 오랜 기간 가르쳐야 하고, 이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메디톡스는 특이하게도 신입사원 채용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디톡스도 예전에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꾼 게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메디톡스에 걸맞은 인재로 육성하는 게 이직률을 낮추고, 직원들에게 메디톡스 DNA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 거죠.”

메디톡스는 이에 공채로 사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인턴십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홍보, 디자인, 마케팅, 회계 등 직군별로 인턴을 모집하여 그에 맞는 교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신입사원들의 적응력이 빨랐어요. 공채 1기가 성공적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죠. 현재 인턴십을 진행 중인데요, 우수 인턴사원들은 추후 진행되는 공채 2기 모집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고객응대근로자의 마음을 헤아려
함께 성장하는 기업

CJ텔레닉스

CJ텔레닉스는 CJ그룹의 유통, 물류,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사업의 고객 접점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컨택센터입니다. 고객 응대 노동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성장하며 **2017년 노사문화 우수 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CJ텔레닉스의 특별한 노사 문화를 만나 보시죠.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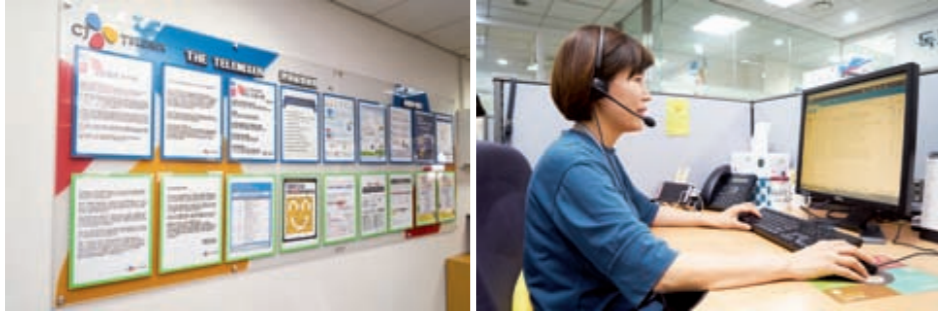


운영총괄 민병하

1995년 국내 최초로 설립

CJ텔레닉스의 전신은 1995년 오쇼핑(CJENM) 홈쇼핑 콜센터입니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홈쇼핑 콜센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1년 분사했죠. 2009년까지는 오쇼핑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CJ그룹 전체 고객의 목소리에 집중하자'는 취지 아래 2010년 CJ그룹의 고객센터를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CJ그룹의 통합 콜센터 운영으로 전반적인 고객 응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2,100명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업

CJ텔레닉스 인사팀 나혜련 과장이 알려준 바에 따르면 현재 CJ텔레닉스의 정규직은 2,100여 명에 달합니다.

“전국에 많은 구성원이 분포되어 있지만, 최대한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심리상담실도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CJ텔레닉스는 심리상담실 운영 외에도 직원들이 업무 중 악성 고객 등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보호받고 휴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SC(Service Consultant) 보호 프로그램’인데요, 상담 도중 ‘Help버튼’을 눌러서 관리자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받거나,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고객과의 통화는 선종료하고 즉각적으로 10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우리 구성원이 업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까지도 다양한 관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퇴직률(1.7%)은 이런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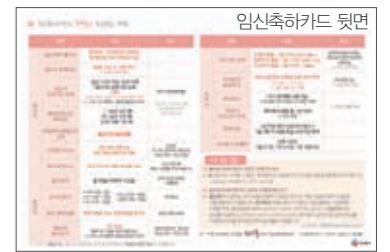
노사가 함께 고민하여 시행하는 복지

CJ텔레닉스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실제 필요한 복지를 실행하여 전 직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그룹의 복지정책을 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성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복지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몰라서 못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을 한 시점에서 축하 패키지와 함께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안내 팸플릿을 제공합니다.”

CJ텔레닉스는 직원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을 같이 고민합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직원이 없도록 자녀입학 돌봄 휴가를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직원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한다면 긴급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2주에서 최대 1개월까지 창의성 제고와 트렌드 캐칭을 위한 자기개발의 시간을 부여합니다.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 시설에 안마의자를 비치하고, 수유실과 수면실도 구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복지는 시행 전 한마음 협의회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전하고 회사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같이 고민하고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구성원들과 함께 나가기 위해

현재 CJ텔레닉스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고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현재 콜센터 사업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요.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구성원들을 상담 전문가로 성장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당사에서 다년간 쌓아온 고객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시큐리티 분야에 도전하여 사업 기반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CJ텔레닉스는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일하면서 회사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하기 좋은 직장, 행복한 직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CJ텔레닉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가을철, 야외 작업 시 진드기를 조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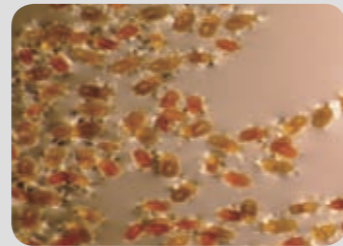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들판이나 풀숲에서 이루어지는 야외 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 자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1 쯔쯔가무시증이란?

쯔쯔가무시증은 8월 하순부터 11월에 주로 감염되는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입니다. 쯔쯔가무시균이 풀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있다가 작업하는 사람을 물면서 몸속으로 침입해 질병을 일으킵니다.



2 쯔쯔가무시증의 감염 증상은?

쯔쯔가무시증은 1~2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합니다.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 피부발진
- 이틀 이상 지속되는 38°C 이상의 고열
- 심한 두통, 기침, 근육통
- 폐렴, 심근염, 뇌수막염 등 합병증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감염 위험이 높은 노동자는

- 삼림, 공원 및 거리 조성사업 종사자
- 배수로 공사 노동자
- 농업, 임업 노동자
- 조경 및 제초 작업 종사자



4 쯔쯔가무시증 예방 수칙

- 작업 전에는 긴 옷과 토시, 장화를 착용하고 진드기피제를 옷에 뿌립니다.
- 작업 중에는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고 휴식 중에는 돛자리를 이용합니다.
- 풀숲에서 용변을 보지 않습니다.
- 작업이 끝나면 바로 목욕을 하고 사용한 돛자리와 작업복은 세탁 후에 햇볕에 말립니다.
-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추가적인 자료 다운로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안전보건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퇴사를 앞둔 노동자입니다. 퇴사하면서 받은 연차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A 회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노동자가 1년을 근무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지급한 금원 중 어떤 것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일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도록 회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노동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입사한 노동자가 2018년 4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 ① 2018년 1월 1일, 2016년 노동의 대가로 2017년 1월 1일에 부여받은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것이고
- ② 2018년 4월 1일, 2017년 노동의 대가로 2018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중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 유급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2018년 4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일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써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결론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만 포함될 것이며, 반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 수당 전부의 12분의 10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최근 3개월 중 2개월이 육아휴직 기간인데 이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A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조 참조). 그렇다면, 육아휴직 중에 또는 육아휴직 후에 퇴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① 평균임금 산정 시의 근속기간과 ②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임금 책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근속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일지라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만약 취업규칙 등에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일이 속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5호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즉, 노동자가 육아휴직 후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의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는 규정을 감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한 날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전체를 차지한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최근 3개월 중 2개월이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일한 1개월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영주 장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사업임에도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제도”라고 소개한 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열매를 이곳 (주)웰크론한텍에서 처음 수확하게 되어 뿌듯하다.”며, “2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만기금을 수령하신 청년들과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신 기업 측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주 장관은 만기청년의 탄생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현장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평가하며 “이 제도는 기존 청년인턴제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나 고용 유지 효과가 우수하며,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고용유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참여 청년들의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사업의 성과를 설명했다.

김영주 장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들을 만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주)웰크론한텍을 방문하여, 플랜트 설비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청년과 기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중·소 격차를 줄여 노동시장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지원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보태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날 김영주 장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한 (주)웰크론한텍 소속 7명의 청년에게 만기증서를 수여하고, 기업에는 감사패를 증정했다.





박영만 산재예방정책국장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신세계그룹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추락사고예방 캠페인 중앙 행사에 참여하여 건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외부 비계 안전성 여부,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은 작업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추락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공사 관계자와는 안전성이 높은 비계 확산방안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여도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원청은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시설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노동자도 보호구 착용 등 안전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캠페인 전국적 전개

고용노동부는 8월 14일 '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본부에서 개최한 중앙 행사를 비롯하여, 지방노동관서별 안전보건공단, 재해 예방 단체 등 유관기관과 건설사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계도기간(8월) 중에 자율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캠페인으로 추락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부 비계 안전시설을 9월(9월 3일~9월 21일, 3주) 중 집중 단속한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고용노동부는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제대로 쓸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 가이드에는 △설치·이용 원칙, △설치 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반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한다.
-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m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지도하고,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18.8.6 산업보건과 유봉현 사무관(044-202-773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도 실업급여 혜택 확대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노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TF'에서 마련한 것으로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되 특고·예술인의 종사 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에서는 특고·예술인 종사자는 물론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8.6.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서기관(044-202-7349)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 인정 처리 절차 개선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 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 관련성 판단 과정을 간소화하여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 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공정 및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 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상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하여 판정토록 산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8개 상병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기존 승인 사례와의 유사성 여부 판단 과정을 거쳐 역학조사 생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산재신청인 권리보호 확대를 위해 산재 입증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하여 재해 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사업장 현장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참여를 안내하며,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요청할 경우 역학(전문)조사보고서를 처분 결정 이전에도 사전 제공하여 신청인의 알권리가 보호되도록 할 계획이다.

2018.8.6 산재보상정책과 공영철 사무관(044-202-7716)

군산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 개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군산대학교에 군산지역의 해외취업 희망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군산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를 개소했다.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 해외취업아카데미 수강, 취업알선 등의 해외취업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군산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는 고용위기 지역에 최초로 구축한 해외취업 거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군산지역의 청년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센터'가 개소되면 해외취업지원센터는 청년센터 내에서 업무할 계획이다.

센터는 군산시, 군산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자동차 및 조선해양산업 분야의 우수 구직자를 확보해 해외 유망 기업 등 양질의 구인처에 매칭해 나갈 계획이다. 개소식에 이어 열린 해외취업아카데미에서는 '글로벌 인재의 조건'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해외취업아카데미는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눈높이형 해외취업 특강과 상담을 제공하며 군산대학교를 시작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해 해외취업 설명회, 박람회 등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2018.8.10 산업인력공단 조승희 차장 (02-6964-7074)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장치 최저임금제도

2019년 최저임금 체크 포인트 3



시급 8,350원



전년 대비 10.9% 인상



월 1,745,15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시급 8,350원, 월 1,745,150원

월 1,745,150원

시급 8,350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는 290만 명~501만 명

영향률
18.3%~25.0%
추정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효과

-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어 소득분배 개선 기대
- 2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 3 노동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
- 4 저임금 의존 경향에서 벗어나 경영효율화 촉진

직장 내 갑질 방지

직장인 김대명 씨

아... 매일매일 주말이었음 좋겠다.

요즘 부쩍 마음고생이 심하다.

얼마 전 새로 온 상사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최명갑 부장입니다.

이해 들어 알고들 있을테니 각오들 하세요.

아... 오늘도 무슨 이유를 들먹이며 갑질을 하려나...

최명갑 부장은 부서에서 갑질 대마왕이다

김대명 씨를 비롯하여 직원들에 대한 부장의 갑질 이유는 다양하다.

자 오늘은 이유 불문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회식 참석!

나보다 먼저 일어나기 있거? 없거?

대박... 월요일 회식 실화나...

이 자료들 좀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볼 수 있게 해 줘요.

부들부들

퇴근시간인데...

아니 이봐요 이종만 씨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소한 실수에도 부장의 분노는 어마어마하다.

하... 내가 이걸 꺼내 말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직서를 만지작거리게 김대명 씨의 하루 일과 중 하나

아냐 내가 이깃 일로 사직서를 낼 그럴 김대명이 아니지

사직서

훗!

갑질을 뿌리뽑고자 굳은 결심을 한 김대명 씨

이글이글

이글이글

사내 갑질을 뿌리뽑아주겠어!

상사 후배의 메일과 메시지 갑질 대화 기록!

메일이든 메시지를 통한 갑질의 증거로 기록한다.

녹음과 녹취로도 증거를 남겨둔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면 불법행위 아님)

으르렁

으르렁

주변 동료들과 공유로 공문화하고 목격자 및 물증을 확보한다.

사직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되도록 쓰지 않아야 한다.

사직서

김대명 씨의 갑질 근절 행동으로 인해 조금씩 직장내 위기감을 느끼게 된 상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갑질근절대책을 통해 이제 갑질이 좀 덜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 김대명 씨

갑질근절대책

고용노동부

16년의 유배생활에도 인사 청탁을 거부하다 정약용

다산 정약용(茶山丁若鏞)은 조선후기의 대표적 실학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정조와의 만남은 정약용이 더욱 학문에 정진하고 국사에 힘쓰도록 하는 기폭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정조의 총애에 정약용은 뛰어난 업적으로 보답하였다.

자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권력에 굴하지 않고 돌본 민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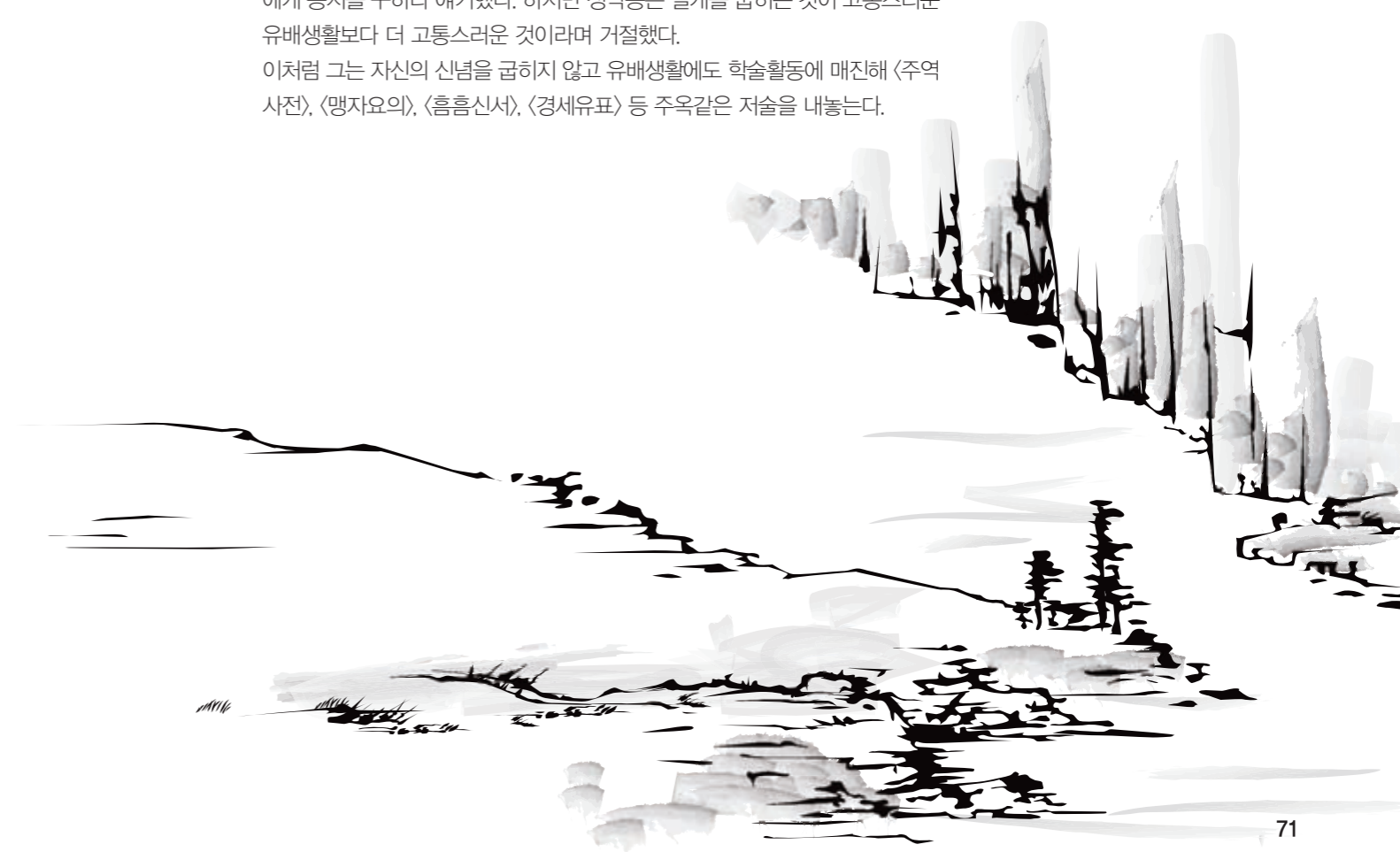
정약용은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데 앞장섰는데,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정약용이 황해도 곡산부사로 부임했을 때의 일이다. 황해감영은 봄과 가을에 백밀(白蜜, 가공한 꿀) 3두와 황밀(黃蜜, 가공하지 않은 꿀) 1섬을 징수하였는데, 감영 아전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백밀 6두와 황밀 2섬을 징수하고 장부에 규정대로 준수한 것처럼 적어 놓았다. 또한 봄가를 뿐만 아니라 수시로 공물을 걷어 갔다. 정약용은 감영이 직속 상급기관이었지만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곡산 아전들이 말썽이 날 것이라 말렸지만 정약용은 지시대로 규정에 명기된 꿀만 바치라 하였다. 황해감영 감사는 정약용이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꿀을 받아들이라고 하였다. 사서관의 부당한 요구를 바로잡는 일은 백성에게는 좋은 일이었지만 정약용에게는 반대하는 무리만 늘어나 좋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호조판서 정민시가 곡산의 좁쌀과 콩을 돈으로 바꾸어 바치라 명령했는데 이를 거절하였다. 그해에는 풍년이 들어 곡식값이 떨어졌는데 돈으로 바치라는 것은 더 많은 양의 곡식을 바치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장계를 올려 이를 거부하자 정민시는 정약용의 처벌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약용이 거절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긴 정조는 정약용의 장계를 꼼꼼히 검토한 후 정약용의 판단이 옳다고 얘기한다.

귀양살이 중에도 청탁을 거부한 끝은 성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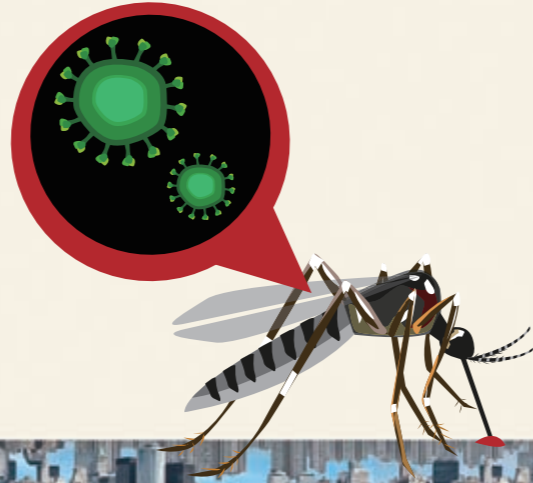
정약용을 총애했던 정조가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이후 그는 반대파의 격렬한 비판을 받아 유배지를 전전하게 되는데, 순조 1년(1801), 그의 나이 40세에 시작된 유배생활은 순조 17년(1818), 그의 나이 56세가 될 때까지 16년이나 계속되었다. 유배생활에 시달리는 아버지를 보다 못한 정약용의 장자 정학연은 판서로 있는 사촌 처남 홍의호와 정약용의 석방을 막고 있는 이기경 대감, 강준흠 대감에게 용서를 구하라 얘기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절개를 굽히는 것이 고통스러운 유배생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라며 거절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유배생활에도 학술활동에 매진해 <주역사전>, <맹자요의>, <흠흠신서>, <경세유표> 등 주옥같은 저술을 내놓는다.



추석 연휴 해외여행 시 감염병에 주의하세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해외여행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지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연휴 기간 중에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은 수인성, 식품 매개 및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여행지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 편집실 도움 자료 질병관리본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감염병

201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중동지역 감염병인 메르스는 208명에게 발생하여 59명이 사망했으며, 2016년부터 유행했던 중국 시 인체감염증의 경우 2017년 9월까지 765명에게 발생하여 283명이 사망했다. 감염병은 가볍게 여기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에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주요 해외 유입 감염병

주요 해외 유입 감염병은 뎅기열, 말라리아, 치쿤구니아열, 지카바 이러스 감염증 등 모기 매개 감염병과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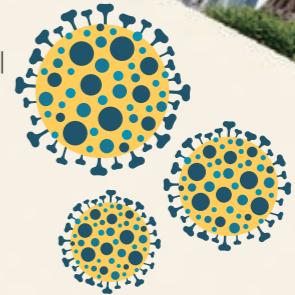
추석 연휴 해외 여행객 감염병 예방 수칙

여행 전

- 1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각종 질병 정보 확인하기
- 2 설사약과 해열제 등 구급약과 모기기피제 준비
- 3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받거나 적절한 예방약 복용
- 4 여행하는 지역의 의료기관 파악해 놓기

여행 중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2 끓인 물 또는 병이나 캔에 든 안전한 음료수 마시기
- 3 익힌 음식물 섭취 및 과일 껍질 벗기고 먹기
- 4 위생 처리가 불결하거나 의심되는 길거리 음식 섭취 자제
- 5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 긴바지 착용
- 6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기피제 사용



여행 후

- 1 입국 시 설사 및 발열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전국 공·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 2 말라리아 예방약은 위험지역을 벗어난 후에도 반드시 적절한 복용법과 복용기간을 준수할 것

톡톡 터지는 알맹이가 매력적인 옥수수

감자와 함께 강원도를 대표하는 식품인 옥수수는 오랜 기간 구황작물로 사랑받았다. 톡톡 터지는 알맹이가 매력적인 간식 옥수수. 최근에는 옥수수 수염차가 부기 제거에 탁월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정리 편집실 도움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6세기 한국에 상륙한 옥수수

옥수수의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남아메리카에서 수천 년 전부터 재배된 것으로 보인다. 1492년 콜럼버스가 옥수수 재배를 목격하고 종자를 스페인으로 가지고 돌아가면서 전 유럽에 전파되었고, 그 후 인도와 중국에도 널리 퍼졌다. 한국에는 16세기에 중국에서 전래되었는데, 그 이름도 중국어인 위수수(玉蜀黍)에서 유래하여 한자의 우리식 발음인 옥수수가 되었다. 지방에 따라서는 옥시기·옥숙구·옥수시·옥쉬이 등으로 불렸으며 강냉이·강내이·강내미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

옥수수에는 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어 변비 예방에 탁월하다. 칼로리가 100g당 140kcal 정도로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는다. 옥수수 씨눈에 풍부한 토코페롤 성분은 심장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좋다. 리놀레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안구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 특히 옥수수 수염은 이뇨 작용이 탁월하고 체내의 요산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부기를 없앤다.



고소하게 톡톡 터지는 매력, 옥수수전

재료 : 통조림 옥수수 1캔, 양파 1개, 피망 1/2개, 부침가루 7큰술, 물 1/2컵(또는 통조림 국물 1/2컵), 소금 1/2작은술, 식용유

만드는 법

- ① 통조림 옥수수는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 ② 양파와 피망은 잘게 다진다.
- ③ 볼에 옥수수와 ②의 재료를 넣고 부침가루와 소금을 넣어 섞는다.
- ④ ③의 재료에 농도를 봐 가면서 물을 넣는다. 수저로 반죽을 들어 보아 푹푹 떨어지는 정도가 좋다.
- 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가열한 후, ④의 재료를 수저로 떠서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상식을 넓히는 소소한 잡학 모음

세상은 넓고 지식은 넘쳐난다.
그 가운데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있지만,
알면 좋고 몰라도 무방한 지식도 많다.
필수는 아니어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모았다.

글 편집실

눈 깜빡이는 횟수

아기들은 1분에 한두 번밖에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 자라면서 점점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늘어나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거의 어른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어른들의 평균 눈 깜빡이는 숫자는 1분에 10회 정도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댐

우리나라 최초의 댐은 서기 330년인 신라 흘해왕(訖解王) 때에 축조된 김제 벽골제(金堤碧骨堤)로, 토사를 다져서 만든 흙댐(높이 4.3m, 길이 3,240m)이다. 오늘날의 댐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규모지만, 그 당시로는 대규모의 토목공사였다.

잘못 알고 있는 민간요법

멍든 곳에 달걀을 문지르면 달걀이 멍든 곳의 피부 조직을 자극해 멍을 확대시킨다. 멍을 빨리 없애고 싶으면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코피가 났을 때 고개를 뒤로 젖히면 피가 목으로 넘어가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코피가 나면 고개를 바로 하고 지혈을 해야 한다.





도심 속에서 만나는 자연과 역사 도산공원

도산 안창호 선생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송고한 선생의 업적과 명언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바로 안창호 선생의 호를 따서 건립한 도산공원이다.
 나들이 하기 좋은 요즘,
 도산공원을 거닐며 선생의 송고한 정신을 기려 보는 것은 어떨까.

글 편집실 사진 노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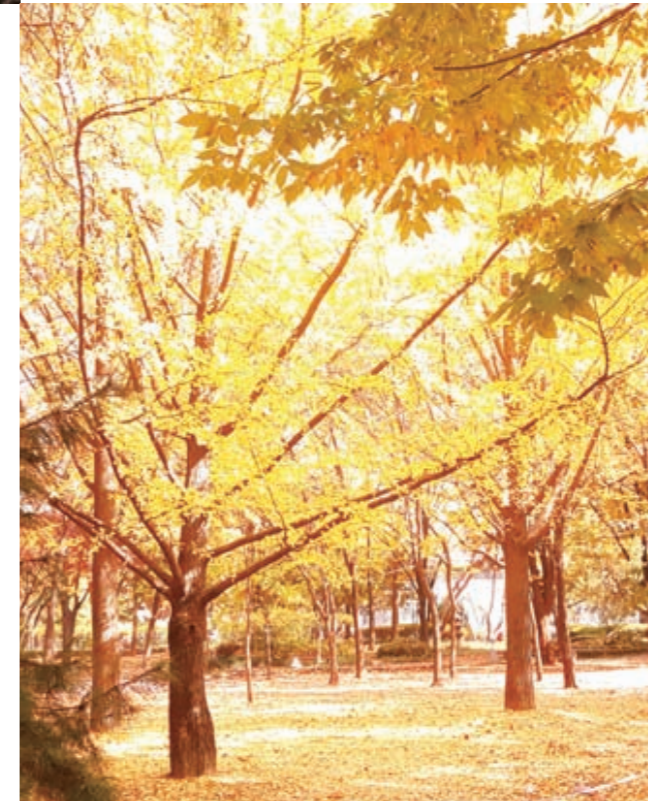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대기를 만날 수 있는 기념관

도산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도산 안창호 기념관이다. 기념관은 무료 입장으로 1월 1일, 설,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기념관에 들어가면 왼편에 작은 영상실이 존재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대기가 영상으로 상영되고 있으니 먼저 보고 들어가면 더욱 좋다. 기념관 내부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안창호 선생의 생애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 안창호 선생의 유품도 볼 수 있다. 안창호 선생의 독립운동 발자취라는 커다란 지도와 선생을 배울 수 있는 탭도 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체험활동지, 기념할 수 있는 스탬프도 있어 아이들과 함께 역사 공부를 하기도 좋다.



사계절 시시각각 변하는 아름다운 공원

도산공원은 1973년 개장한 역사가 오래된 공원으로 우거진 나무가 곳곳에 있어 따가운 햇빛을 피하기에도 좋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부인 이해련 내외의 묘소도 자리하고 있어, 추모객들도 꾸준히 찾는 편이다. 공원 곳곳에는 쉼터와 함께 선생의 명언이 새겨져 있는 비석들이 존재하여 그 시절 송고했던 위인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와 안창호 선생의 동상도 만날 수 있다. 산책로는 동글게 조성되어 한 바퀴 가볍게 돌며 산책하기에 제격이다.



1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인간다운 삶의 시작입니다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과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노동자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1인당 월 60~80만원, 1~2년간)
※ 조기단축 사업장 우대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1~3년간)
- ◆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1인당 월 최대 40만원, 1~2년간)
- 사업주가 임금감소액 보전 시 지원(임금보전비용의 80% 한도)
-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고용창출지원금 연계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안내

01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지원금액 상향 내역

주 소정 근로시간	세부 인상 내역	
	월 지급액(현행)	월 지급액(개정안)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20,000원	120,000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0,000원	120,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60,000원	90,000원
10시간 미만	30,000원	60,000원

※ 2018. 7월 지원금부터 적용

※ 기존부터 지원받던 사업주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인상된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02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대상

그간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신청 당시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여 왔으나,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사업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소급 신청 가능 퇴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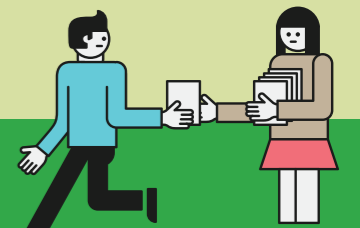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
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② 1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 고용보험 가입(적용제외자도 지원) ④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⑤ 특수 관계인 제외 등
- ✓ 위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2018. 1. 1. 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 ✓ 단, 비자발적인 퇴사자(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사업주는 지원 제외

신청방법

해당 사업주는 **2018. 8. 16.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서 제출**(팩스, 우편, 방문 등)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퇴사자용 신청서식** 다운 받아 활용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월간 <내일>이 함께 합니다.

웹진으로 <내일>을 만나 보세요

월간 <내일>을 웹진으로 만나 보세요. 월간 <내일> 홈페이지(<http://labor21.com/>)에 접속하면 지난 호부터 최신 호까지 다양한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월간 <내일>은 독자들이 만들어 갑니다

월간 <내일>은 독자와 함께 합니다. 알고 싶은 정책, 좋았던 기사, 기타 개선해야 하는 점 등 자유로운 의견을 보내 주세요.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이 월간 <내일>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8월호 퀴즈 정답 대학일자리센터

8월호 정답자

김미경(인천 동구)
김민희(대구 수성구)
김진주(경북 김천)
김현미(광주 북구)
이정숙(서울 관악구)

이종민(서울 서초구)
장은실(부산 연제구)
최연희(인천 부평구)
최정윤(경북 청도군)
최진(충북 제천시)

*축하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1만 원)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9월호 퀴즈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다양
한 평가를 거쳐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
하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 자격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퀴즈 정답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을 엽서에 적어,
매월 20일까지 <내일>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월간 <내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소식지 월간 <내일>의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엽서에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하여 보내 주시거나 월간 내일 웹진
(<http://www.labor21.com/>)에서 신청해 주세요. 익월부터
반영되어 소식지를 보내 드립니다.



www.labor21.com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월간 <내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을 만나 보세요

일을 통한 행복을 알려 주는 고용노동부의 소식지 월간 <내일>
월간 <내일>에는 도움이 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직원과 상생하며 성장해 나가는 기업,
알고 싶은 상식 등 꼭 필요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가을이 주는 소리



내일

my Work, my Tomorrow 2018. 9. vol.521

보내는사람

성명 _____ (남 여)

주소 _____ 휴대폰(-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7.01.25 - 2019.01.24

서울강남우체국
제41787호

my Work, my Tomorrow 2018. 9.

내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3길 8 (신사동, 산도빌딩 5층)

하나로애드컴 월간 <내일> 편집실 앞

0 6 0 2 6

< Campaign Report >

1. 귀하의 성별은?

- 남자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 10대
 20 · 30대
 40 · 50대
 60대 이상

3.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군은?

- 유통 · 서비스업
 제조업
 의료 · 제약
 교육업
 건설업
 IT통신
 미디어디자인
 금융업

4. 귀하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섹션은?

- 청년 정책
 여성 · 중장년 이야기
 기타 고용노동정책
 문화예술 정보

5. 귀하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 정책은?

-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 개선
 안심일터
 노사관계

6. 보셨다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업종 다양화
 실패 사례
 관련 제도
 트렌드사업 정보

월간 내일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
에 표시해 주세요

● 9월호 독자퀴즈의 정답을 적어 주세요.

●● 이번 호에서 인상 깊었던 기사와 그 이유를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 다음 호에 실렸으면 하는 내용이나 월간 <내일>에 바라는 점을 적어 주세요.

이곳에 풀을 칠해 주세요